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김 중 필_간사

우선 지면으로 도서관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독자를 만날 수 있음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조직의 구성과, 협의회 활동내역을 소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중점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필자 주

1. 협의회 조직 및 임원

- 회 장 : 제1대 회장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장 김운태 회장을 시작으로 현재 13대 회장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장 이광래 회장이 재임하고 있다.
- 임 원 회 의 : 회장 1인, 부회장 2인, 기관이사 4인, 실무이사 5인, 기관감사 1인, 실무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운영한다.
- 사무국운영 : 협의회 사무국은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내에 두고 있으며, 국장 1인, 총무 1인이 회무를 담당한다.
- 위 원 회 : 국립대학도서관보 편집위원회, 도서관발전위원회, 도서관발전실무위원회, 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 40년사 발간위원회를 두고 있다.

2. 협의회 활동

1) 초창기(1962. 10. ~ 1972. 4.)

초창기에는 6개 대학의 도서관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다.

분류표의 통일문제, 목록기입형식의 통일문제, 종합목록의 작성, 인쇄카드 문제, 고서정리 통일방안, 목록카드 복제방법, 대학도서관 직제확립 문제, 도서관장의 대우문제(학장회의에의 참석 등), 사서직 정원 증원문제, 사서직 수당지급문제, 도서관장의 분임 재무관 임명문제, 자율적 경비 중 도서비 징수문제, 유네스코 쿠폰 배정문제, 도서비 예산증액, 외국간행물 목록교환, 국내간행물 복본 교환, 문헌복사 업무의 추진, 복제에 의한 자료교환, 대출의 통일성과 간소화 문제, 망실도서의 처리문제, 도서관규칙의 통일문제, 실무자 연수교육문제, 대학도서관 설치기준 문제, 도서관법 시행세칙 제정 문제 등의 해결에 많은 기여가 있었다.

2) 전환기(1972. 12. ~ 1982. 6.)

전환기의 협의회는 4년제 대학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회원교의 증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교육 풍토변화에 걸 맞는 도서관 환경 및 봉사형태의 변화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이 시기의 성과로서는 국립대학교에 도서관학과 5개소 및 도서관교육과 1개소를 개설하는 주요성과가 있었다. 또한 전환기에 들어와서 사서 실무 연수교육의 실시, 실무자 세미나의 개최 및 대학도서관

업무편람의 발간 등 초창기와는 원연히 다르게 내실을 다져왔다.

3) 발전기(1982. 11. ~ 2003 현재)

이시기에 우리 협의회는 회원자격의 획기적으로 개방으로 그 수가 급속히 증가 하였다.

교육대학들이 모두 4년제로 되면서 11개 교육대학이 모두가 회원교가 되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한국교원대학교 등의 특수대학이나 각종 산업대학이나 공업대학은 물론이고 서울시립대학이나 인천시립대학 등의 공립대학도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육사, 공사, 해사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국방부 소속의 군 특수대학이나 행정자치부 소속의 경찰대학 도서관까지도 회원이 되어 현재 51개 대학(교) 도서관이 가입되어 있다.

3. 주요사업

1) 국공립대학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 개최

1978년 9월 제1회 사서직 실무자세미나를 시작으로 2004년 2월 41회 도서관·정보학 학술세미나까지 총 4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회원교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향상은 물론 현장의 경험 및 체험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술정보 교류의 장을 운영하고 있다.


2) 국립대학도서관보 간행

1983년 6월 1집부터 2003년 6월 20집까지 국립대학도서관보를 간행하여 대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논문 수록, 학술세미나 발표주제 수록, 총회 회의록 수록, 회원교 도서관 소식 게재, 회원교 도서관의 각종 통계를 수록하여 배포함으로써 대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3) 총회개최

매년 6월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본 협의회는 2003년 6월 까지 총 55차 총회를 개최하고 대학도서관 현안문제를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수많은 건의서를 채택하고, 이를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제출함으로써 대학도서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4) 국립대학도서관 40년사 간행

2004년 6월 본 협의회 특별사업으로 국립대학도서관 40년사를 발행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문의 :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전화 : 033-250-8159, E-mail : kimjp@mail.kangwon.ac.kr, 주소 : (200-701)

강원도 춘천시 호자2동 192-1]

미국 동아시아도서관 협의회(CEAL, Council on the East Asia Libraries)와 한국자료분과위원회

이 호 경 _ 한국자료분과위원장

CEAL 역사와 역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지역에서 한중일 동양서를 다루는 사서들의 가장 큰 협의 기관이라고 하면 아시아학회(Association of Asian Studies)에 한 위원회 형태로 속해있는 CEAL을 들수 있다. 회원은 주로 대학도서관의 동양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주제전문사서 및 목록사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주거하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이나 미의회도서관과 같이 전문도서관에서 한·중·일 자료를 담당하는 사서들도 대다수 참여하고 있다. 1967년에 정식으로 CEAL의 이름으로 아시아학회에 등록이 된 협의회로 인정을 받았으나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위원회 형태지만 국가적 차원의 여러 모임들의 시도가 있어왔다. 이러한 모임들의 취지는 미국내 동양도서관의 통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으로 1948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도서관의 동양도서관 수집이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점차 활발히 시작되었던 것과 같은 시대적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초기 성립기간에는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와 미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중심이 되어 장서수집, 목록 그리고 직원교육의 안건들을 놓고 동양장서의 발전 성장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알수 있다. 그리하여 현재는 약 100여개의 도서관회원과 약 250명이 넘는 등록된 개인회원으로 확대되어 한·중·일 극동아시아 도서관인의 가장 규모있는 모임으로 그 활동영역을 더욱 넓히고 있다.

참고로 CEAL의 모체가 되는 기관인 아시아학회는 국제적인 협회로서 현재 그 자리를 굳히고 있으며 아시아에 관심있는 학자들의 구성원으로 집합되어있다. 《Far Eastern Quarterly》(현재는 《Journal of Asian Studies》)라는 아시아 전문학회지 발간을 시작으로 1941년에 정식 학회로서 인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아시아전역의 이해를 높이고 학자들간의 정보교환 및 세미나를 통한 발표와 간행물의 출판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학회내에 극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도서관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진 협의회로서의 CEAL이라는 기관의 목적은 먼저 동아시아도서관의 공동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한·중·일 자료의 서지구축과 목록에의 접근(Access)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안해내고, 도서관간의 발전을 도모하며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함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의 CEAL의 업적들을 이루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 몇가지 만을 예를 들면, 미의회도서관과 협력하여 동양서 목록에 필수적인 여러가지 목록의 체계를 세웠으며 OCLC나 RLG(Research Libraries Group)와는 한·중·일 목록의 기계화를 위해 자문기관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또한 CRL(Center for Research Libraries)과는 동양서 수집을 확대해 가는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참여해 온 바 있다. 이렇게 국가적인 자문기관으로서 동양서와 동양도서관에 관한 그 업적과 그에 따른 성과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CEAL의 조직

CEAL에는 회장과 임원들이하 8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전문위원회 그리고 대표들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다시 자료의 지역별로 한국자료위원회, 중국자료위원회, 일본자료위원회로 나뉘며 이용자 서비스를 논의하는 참고봉사위원회, 도서관의 기술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술위원회, 자료의 정리목록을 주제로 하는 목록위원회, CEAL의 정기간행물인 《Journal of East Asia Libraries》의 발간 및 간행을 담당하는 출판위원회, 그리고 CEAL회원 도서관의 여러가지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위원회로 세분화되어 있다. 각각의 위원회는 3년의 임기로 선출된 임원을 중심으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해 나가며 매년 아시아학회때 함께 열리는 컨퍼런스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을 맡고 있다.

한국자료분과위원회의 현재와 미래


CEAL의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자료분과위원회(Committee on Korean Materials)는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한 한국학자료를 수집하고 목록정리 및 참고봉사하는 사서들이 주축이 되어있다. 필자는 현재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한국자료분과위원회의 회장을 맡아 일하고 있으며 씨앤티의 워싱턴주립대학 한국학사서로 일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한국학사서들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사업을 제일먼저 손꼽을 수 있다. 북미지역에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및 미의회도서관에서 각각 흩어져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간에 1년에 한번 있는 컨퍼런스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수 있는 기회란 그야말로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도 10년전 처음으로 이 모임을 접했을 때 서로 일하는 곳은 다르지만 한국자료를 한국이 아닌 북미지역에서 다루는 도서관인으로 공유하는 부분들로 많은 이야기의 화제를 삼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중의 하나로 지난 2001년에는 한국자료분과위원회에서 한국자료 담당사서들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했던 것과 핸드북 발간을 들수 있다. 같은 사서들간의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사서들에게 한국장서를 관리하고 수집 목록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우미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북미지역의 곳곳의 동양도서관에서는 한국학장서의 규모가 걸음마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전문 한국학사서가 없이 한국장서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적지 않게 있어 이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배움의 기회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일년마다 모이는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의 도서관들과도 정보교환을 여러각도로 시도하고 있다. 국회도서관과 국가정보기관 및 학술교육단체들의 인사를 초청하여 정보관련 현황을 나누기도 하며 멀리서나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서관계의 변화를 빨리 흡수할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미국내에서도 서로의 기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보고나 활동들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들

을 보충해 나가기도 한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일이 한국자료분과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꾸준히 한국자료분과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북미지역 사서들의 인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실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약 40~50여명이 위원회의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또한 전자자료들이 인터넷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한국학 관련 자료도 점차 방대해짐에 따라 인터넷자료의 좀 더 체계적이고 선별된 자료제공을 위해 위원회에서는 수 년 전부터 주제별로 자료를 선택 수집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현재까지도 북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서들간에 자발적인 지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 수년안에는 북미내에서 도서관의 서지정보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한글의 메쿰라이샤¹⁾ 로마자와 띄어쓰기 사용법과 관련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에 있으며 한국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자료 이용법에 대한 워크숍이나 회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특별히 이번 2004년도 3월에 있을 컨퍼런스에는 한국도서관협회의 2006년 IFLA서울대회 개최와 관련해 재미 한국사서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활발한 협력과 교류가 또한 논의될 계획 중에 있어 이를 계기로 한국도서관협회와 CEAL의 한국자료분과위원회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위원회의 또 하나의 바람은 북미지역의 한국학사서들을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을 한국도서관협회 및 관련기관의 주선으로 가까운 시일내에 장소를 불문하고 모두 함께 자리를 나눌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것도 좋은 안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문의 : 워싱턴주립대학도서관, 전화 : +1-206-543-6603, E-mail : hkyi@u.washington.edu, 주소 : East Asia Library, Box 353527,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98/95-3527, USA]



The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Homepage

The official homepage of CEAL, the organization for East Asian librarians in North America. Click here for a note about being marking this web site.

Last revised Friday January 23, 2004

Guides to Research on East Asia

- **General Guides**
 - **Ask An East Asian Studies Librarian**
A subject reference desk for East Asian Studies, specially designed for continued inquiry and reference, is an integral part of the CEAL and CEAL.
 - **The Digital Asia Library**
The goal is established capacity to high quality Asian internet resources
 - **Subject Resources for Asian Studies (Non-Asian Languages)**
From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 **Area Studies Guides**
 - **Chinese Area Studies**
The Chinese Area Studies site is currently under development. Please check back later.
 - **Japanese Area Studies**
 - **Korean Area Studies**

CEAL Publications and Email List

- **CEAL Directory**
- **East Asia Librarians: Instructions for Subscribing**
Clicks to the Librarians Interest E-mail group for East Asia Librarians in North America
-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anship**
 - **Instructions to Subscribers**
 - **Electronic Subscriptions**

CEAL Committees

- **Committee on Chinese Materials**
- **Committee on Japanese Materials**
- **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 **Committee on Library Technology**
- **Committee on Public Services**

(www.library.umass.edu/subject/easian/cps)

1) 미국에서 쓰고 있는 한국어 로마자법 이름, 원어는 McCune-Reischauer Romanization